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형성과 변화의 맥락*

정인숙**

1. 머리말
2.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형성 : ‘구가’를 중심으로
3.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변화의 맥락
4.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변화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가사는 18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여항·시정문화와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게 된다.¹⁾ 그 가운데 풍류방 문화권에서 가창가사로 정착하게 되는 이른바 ‘歌辭의 歌唱化’ 또는 ‘歌辭의 歌詞化’ 현상은 18~19세기 가창공간에서 가사가 시조와 함께 연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가창공간에서는 類似 情調의 사설을 짜깁기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고유한 작자성이 상실되거나 시적 화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를 공감시킬 수 있는 목소리가 등장하거나 가창공간의 상황에 따라 사설이 즉흥적으로 변개되고 어휘 착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조선후기 가창가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 국문학회 하계학술발표회(2011.7.6/강원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정토론자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1) 선행 연구에서는 변화의 방향을 독서물화를 지향하면서 서사적 이야기 거리를 담아내거나 혹은 장편화 함으로써 시정 담론화 하는 방향, 풍류방 문화권에서 혹은 여항·시정문화권에서 가창되면서 잡가 스타일로 근접해 가는 방향, 규방문화권으로 들어가 규방의 독서물 혹은 규방의 담론으로 되는 방향 등 세 가지로 논의한 바 있다.(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21~22면)

조선후기에 성행하여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12가사²⁾는 가창가사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그 가운데 <춘면곡>, <상사별곡>, <권주가>, <어부사> 등은 이미 18세기부터 존재했고 그 외의 곡들은 19세기에 들어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³⁾ 18~19세기 가창문화권에서는 古調에서 新調로 변화가 진행되었는바 앞 시기부터 전승되어 온 가사가 계속 불려지거나 대중의 기호에 맞지 않는 가사는 도태되어 사라지고 새로운 가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12가사 가운데 <춘면곡>, <상사별곡>, <권주가>는 新舊의 변화 양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노래이다. <춘면곡>은 고조 <춘면곡>에서 柳晩恭의 『歲時風謠』(1843)의 기록⁴⁾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신조 <춘면곡>으로, 그 후 서도소리로 불리는 계면조 <춘면곡>으로 진행되었고⁵⁾ <상사별곡>은 41행에서 15행으로 축소된 데서 볼 수 있듯 사설을 덜어내고 새로운 악곡에 얹혀 불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논의된다.⁶⁾

그러면 <권주가>는 어떠한가? <권주가>는 여러 가집과 고악보, 잡가집에 두루 실려 있을 만큼 오랜 세월동안 인기가 있었던 노래로 짐작된다. 현재 舊歌와 現行歌 두 종류의 사설이 전해오는데, 구가는 ‘잡으시오 잡으시오~’로 시작하고 현행가는 ‘블로초로 술을 빚어~’로 시작한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든 구가와 현행가는 서두부터 서로 다른 사설이 배치되어 있어 신구 사설의 변화 양상이 특이한데 그 변화의 맥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의외로 구가에서 현행가로 변화된 맥락을 자세히 검토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물론 <권주가>가 古調, 舊歌, 新調, 現行歌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가집에 수록된

2) <춘면곡>, <상사별곡>, <권주가>, <어부사>, <처사가>, <수양산가>, <양양가>, <백구사>, <황계사>, <매화타령>, <죽지사>, <길군악>

3) 김창원, 「조선후기 『歌詞』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643면.

4) “배반이 난만한 곳에 받은 얼마나 깊었나. 가곡이 끝나자 잡가로 넘어가네. 고조의 춘면곡은 요즘 부르지 않으니, 황계사는 흐느끼고 백구사는 어지럽네(杯盤爛徹夜如何 曲罷篇歌變雜歌 古調春眠今不唱 黃鷄鳴咽白鷗哇)” 『세시풍요』

5) 김학성, 앞의 논문, 23면.

6) 성무경,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68~69면.

사실도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한 논의가 있었다.⁷⁾ 그러나 그러한 존재 양상이 고조와 신조의 교체가 잦았던 19세기 연행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주로 19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구가의 사실만을 논의했을 뿐, 구가에서 현행가로의 사실 변화의 맥락은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12가사의 연원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권주가>가 유사한 주제의 노랫말을 몇 편 모아서 보다 큰 작품을 이루는 ‘합성 구성’의 방식을 보이는 점을 언급했으나⁸⁾ 여기에서도 여전히 구가만이 논의대상이었다. 그런가 하면 구가도 현행가도 아닌 『增補新舊雜歌』 소재 <권주가>를 대상으로 한 논의도 있는데,⁹⁾ 독립 시조 몇 편의 단순한 합성으로 설명하고 있어 재론이 필요하다. 한편 국악계 쪽에서 구가와 현행가의 사실 변화의 측면을 논의한 연구도 있으나,¹⁰⁾ 현행가의 전체 10절 중 5절(2,3,5,6,7절)은 구가의 사실 일부를 발췌한 것이고 나머지 5절(1,4,8,9,10)은 새로 추가하여 만든 것이라는 설명 외에 사실 변화의 맥락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관 <춘향전>에 대한 논문을 읽으면서 <권주가>의 구가와 현행가의 관계 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를 느꼈다. 경관 <춘향전>에는 시조, 가사, 민요 등 다양한 노래가 삽입되어 있고 그 가운데 <권주가>는 춘향과 이도령의 첫날밤 장면과 신관사또의 생일잔치 장면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경관 30장본에는 구가가, 경관 23장본에는 현행가가 삽입되었다고 보고 이를 30장본과 23장본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근거의 하나로 삼아 30장본 간행 이후 30장본을 축소·개작한 것이 23장본이라고 추정하는 바 있다.¹¹⁾ 그런데 최근 논의에서 23장본에 삽입된 <권주가>¹²⁾가 과연 새로 등장한 노래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30장본과 23장본의 선후 관계를 추정한 선행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¹³⁾ 이 주

7) 김은희, 「十二歌詞의 文化的 基盤과 樣式的 特性」,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80~87면.

8) 임재욱, 「12가사의 연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3~74면.

9) 성범중, 「<장진주>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409~411면.

10) 김창근, 「가사 권주가의 사적 고찰」, 『한국음악연구』 27, 한국음악학회, 1999, 135면.

11) 이문성, 「경관 춘향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2) 경관 23장본에는 춘향과 이도령의 첫날밤에 춘향이 부르는 ‘불로초로 술을 비저~’로 시작하는 <권주가>와 신관사또의 생일잔치에서 기생이 부르는 ‘드릿세오 이 술 혼잔~’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육설 권주가’가 삽입되어 있다. 본문의 <권주가>는 전자를 가리킨다.

장의 근거는 23장본의 <권주가>가 이미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과연 그런지 사실관계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문헌에 기록된 <권주가>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선행 연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19세기~20세기 문헌에 실린 12가사 <권주가>의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권주가>의 구가와 현행가의 사실 형성과 변화의 맥락을 검토하고, 나아가 사실 변화에 수반된 정감의 변화에도 주목하여 그 맥락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2가사 <권주가>의 사실 형성 : ‘구가’를 중심으로

張師勛에 따르면 <권주가>는 구가의 음악은 없어지고 현행가만 河圭一에 의해 전승되는데, 현행가의 1, 2, 3, 4절과 5, 6, 7, 8, 9, 10절은 각각 같은 가락의 반복이고 술잔을 권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단이 없이 마음대로 내뿜는 자유형이며 5절 이하는 부르는 이가 드물다고 한다.¹⁴⁾ 참고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작한 음반¹⁵⁾에 수록된 <권주가>는 현행가의 1절과 2절만을 부른 것으로 총 5분 35초 분량이다.

<권주가>는 술을 권하는 노래이지만 즐겁거나 흥겹지 않고 곡 자체가 어딘가 슬픔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 당나라 이래로 제작된 <將進酒> 계열의 작품들이 대개 인간 생명의 유한성에서 오는 허무의식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권주가> 역시 비애의 감정을 띠게 되는 것으로 논의된다.¹⁶⁾

우선 『가요집성』에 수록된 현행가와 구가의 사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⁷⁾

13) 이지영, 「경관 춘향전의 개작방향에 대한 재론」, 『어문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년 여름, 127면.

14)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158면.

15) 『최정희 가곡(歌曲)·가사(歌詞)』,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녹음일: 1974. 11. 24)

16) 성범중, 앞의 논문, 412면.

<1> <권주가>(現行歌)

○ 불로초(不老草)로 술을 빚어 만년배(萬年盃)에 가득부어 비나니다 남산수(南山壽)를

○ 약산동대(藥山銅臺) 어즈러진 바위 꽃을 꺾어 주(籌)를 노며 무궁무진(無窮無盡) 잡으시오

○ 권군종일명정취(勸君終日醕酒醉)하자 주부도유령분상토(酒不到劉伶墳上土)니 아니취코 무엇하리

○ 백년(百年)을 가사인인수(可使人人壽)라도 우락중분미백년(憂樂中分未百年)을 살았을 때 잘 놔시다

○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야 꽃진다고 설위 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可憐)하다 우리 인생(人生)

○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지 나만 홀로 이러한지 임도 또한 이러한지

○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蒼茫)한 구름 속에 비인 소리뿐이로다

○ 왕상(王祥)의 이어(鯉魚)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든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曾者)같이 하오리라

○ 이 술 한 잔(盞) 잡으시오 이 술을랑 반도연(蟠桃宴)의 천일주(千日酒)니 쓰나다나 잡으시면 만수무강(萬壽無疆) 하오리라

○ 인간오복수위선(人間五福壽爲先)은 예로부터 이른배라 비나이다 비는 바는 산하(山河) 같은 수부귀(壽富貴)를 천년만년(千年萬年) 누리소서

<2> <권주가>(舊歌)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盞) 잡으시면 천만년(千萬年)이나 사오리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다나 잡으시오 권(勸)할 적에 잡으시오

제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자(王將軍之庫子)오니 약비이지박등(若飛蛾之撲燈)이며 사적자지입정(似赤子之入井)이라 단불의 나뭇 몸이 아니 놓고 무엇하리 살았을 제 먹고 노세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야 꽃 진다고 설위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可憐)하다 우리 인생(人生) 뿌리 없는 부평초(浮萍草)라 홍안백발(紅顏白髮)이 절로 오니 권들 아니 설단 말가

약산동대(藥山銅臺) 어즈러진 바위 꽃을 꺾어 주(籌)를 노며 무궁무진(無窮無盡) 먹사이다

가일엽지편주(駕一葉之扁舟)하며 거포준이상속(擧匏樽而相屬)이라 기부유어천지(寄蜉蝣於天地)하니 묘창해지일속(渺滄海之一粟)이라 애오생지수유(哀吾生之須臾)하고 선장강지무궁(羨長江之無窮)이라 협비선이오유(挾飛仙而遨遊)하고 포명월이장중(抱明月而長終)이라 지불가호취득(知不可乎驟得)일세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러기 슬피 운다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蒼茫)한 구름 밖에 비인 소리뿐이로다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현행가는 ‘○’ 표지로 구분되는 10개의 단위 사실이 합성된 형태로 되어 있고, <2> 구가는 ‘○’ 표지 없이 행만 바꾸어 8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다. <1>, <2>는 ‘歌詞部’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12가사가 모두 소개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권주가>가 구가/현행가의 구분이 확실한 형태로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17) 본고에서는 『가요집성』(이창배 편저, 흥인문화사, 1976) 소재 <권주가>를 기본 자료로 삼는다. 『가요집성』은 가곡, 가사, 시조, 민요 등 전승되어 온 노래들을 집대성한 저서로, 1955년 편찬된 이래 빠진 노래를 보충하여 1956년, 1959년에 『증보가요집성』으로 출판되었다가 1976년에 양장본 『가요집성』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한편 1976년에 출판된 『한국가창대계』(이창배 편저, 흥인문화사, 1976)에 수록된 <권주가>의 현행가와 구가는 『가요집성』과 비교할 때 사실은 동일하나 현행가의 경우 ‘○’ 표지가 없는 점이 다르다. 또한 『한국가창대계』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노래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가요집성』이 노래의 사실 자체를 수록하는 데 목적을 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권주가>의 사실 형성과 변화의 맥락을 검토하는 데는 사실 수록에 주목한 『가요집성』의 자료가 논의의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가가 10개의 분절된 사실 가운데 5절 이하는 불리지 않는다고 할 때 『가요집성』의 자료에서 그 분절 형태를 ‘○’ 표지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에 논의의 전개에 효과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요집성』보다 편찬시기가 빠른 『가곡원류』(합화진본)(1943)를 보면 <권주가>가 이미 구가/현행가로 나뉘어 있고 사실도 『가요집성』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940년대 문헌에 구가/현행가의 사실이 확정되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면 우선 <2> 구가의 사실 짜임을 살펴보도록 하자.¹⁸⁾

① 잠으시오 잠으시오 이 술 한 잔(盞) 잠으시면 천만년(千萬年)이나 사오리다

②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다나 잠으시오 권(勸)할 적에 잠으시오

③ 제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자(王將軍之庫子)오니 약비아지박등(若飛蛾之撲燈)이며 사적자지입정(似赤子之入井)이라 단불의 나뭇 몸이 아니 놀고 무엇하리 살았을 제 먹고 노세

④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야 꽃 진다고 설위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可憐)하다 우리 인생(人生) 뿌리 없는 부평초(浮萍草)라 홍안백발(紅顏白髮)이 절로 오니 권들 아니 설단 말가

⑤ 약산동대(藥山銅臺) 어즈러진 바위 꽃을 꺾어 주(籌)를 노며 무궁무진(無窮無盡) 먹사이다

⑥ 가일엽지편주(駕一葉之扁舟)하며 거포준이상속(舉匏樽而相屬)이라 기부유어천지(寄蜉蝣於天地)하니 묘창해지일숙(渺滄海之一粟)이라 애오생지수유(哀吾生之須臾)하고 선장강지무궁(羨長江之無窮)이라 협비선이오유(挾飛仙而遨遊)하고 포명월이장종(抱明月而長終)이라 지불가호취득(知不可乎驟得)일세

⑦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러기 슬피 운다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蒼茫)한 구름 밖에 비인 소리뿐이로다

⑧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잠으시오 잠으시오~’로 시작하는 ①은 ‘勸酒’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사실로 구가 <권주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②

는 漢武帝가 하늘에서 내리는 長生不死의 甘露水를 받기 위해 建章宮에 承露盤을 만들어 놓았다는 고사를 끌어와, 승로반에 고인 이슬로 된 술이니 만큼 꼭 마셔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에서는 제 것 두고 못 먹는 사람은 왕장군¹⁹⁾의 창고지기[庫子]라 하고, ‘나는 나뭇이 등불에 부딪히는(뛰어드는) 것과 같다[若飛蛾之撲燈]’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似赤子之入井]’ ‘활활 타는 불에 맥없이 스러져 가는 나비(단불의 나비)’ 등의 표현을 통해 인간이 몹시 위험하고 불안하며 힘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살았을 때 먹고 놀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는 <회심곡>에서 일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²⁰⁾ 부평초와 같은 뿌리 없는 삶, 저절로 늙어가는 상황에 대한 회한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⑤는 정철의 <장진주사>의 ‘~곳거거 算노코 無盡無盡 먹새그려’의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⑥은 蘇東坡의 <前赤壁賦>에서 인용한 것으로 ‘일엽편주를 타고[駕一葉之扁舟]’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舉匏樽而相屬]’ ‘하루살이 같은 목숨으로 천지간에 붙어 있으니[寄蜉蝣於天地]’ ‘망망한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처럼 보잘 것 없다[渺滄海之一粟]’고 하고, ‘우리 삶이 잠깐임을 슬퍼하고[哀吾生之須臾]’ ‘장강은 끝없음이 부러워[羨長江之無窮]’ ‘하늘 나는 신선과 어울려 즐거이 놀고[挾飛仙而遨遊]’ ‘밝은 달을 안고 오래오래 살려고 하나[抱明月而長終]’ ‘그것이 쉽사리 될 수 없음을 아네[知不可乎驟得]’라는 대목이다. 인간은 매우 하찮은 존재로서 오래 살고 싶어도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서글플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⑦은 조선후기 애정가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구절로 서글프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한껏 자아낸다. ⑧은 <상사별곡>의 한 구절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점에서 ⑦과 비슷한 정감을 유지한다.

정리하면 <2> 구가는 소동파의 <전적벽부>, 정철의 <장진주사>, <회심곡>, <상사별곡> 등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실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가가 1940년대 문헌에 소개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즉 구가의 사실이 정착되기 이전, <권주가>의 사실은

19) ‘왕장군’은 온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 장군 王濬으로 그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20) <회심곡>에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슬피 마라 / 명년삼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 인생 한 번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웨라”는 구절이 있다.

18)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실이 분절된 기준으로 번호를 매겨 제시하도록 한다.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료현황을 파악해 보면 <권주가>는 19세기~20세기 초 여러 가집과 악보에 두루 실려 있으면서 다양한 갈래와 편곡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가/현행가의 사설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편의 자료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특정 작품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칫 변화의 맥락을 단선적으로 파악하게 할 위험이 있으나, 모든 <권주가> 사설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 역시 논의가 산만해 지고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논의대상을 제한하기로 한다.

12가사 <권주가>의 사설은 19세기 가집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이른 것으로는 19세기 전반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영언』(가람본)이다. 여기에는 <勸酒歌古調>와 <勸酒歌>가 수록되어 있는데 후자는 <2> 구가와 비슷하나 전자는 사설이 사뭇 다르다. 먼저 <勸酒歌古調>부터 살펴보자.

<3> <勸酒歌古調>

人生百年 살 줄 알면 酒色을 참다 관겨하라 / 人命이 在天이라 西出陽關의 無古人하니 / 勸君更進一杯酒라 약산동터 녀즈러진 바회 / 꽃을 찢거 슈을 노코 無窮無盡 잡수시오 /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혼잔 잡수시오 / 秦始皇 漢武帝는 萬乘天子로되 / 採藥求仙 ㅎ얏잇서 부더 아니 가러터니 / 松柏茂陵 되야잇고 石崇은 巨富로되 / 匹夫로 도라가고 顏淵은 一瓢簞食로 / 聖듯이 되엇는니 제겟 두고 못먹기는 / 王將軍之庫子오니 제발 제발 잡수시오 / 첫진은 人事酒요 돌지잔은 合歡酒요 / 셋지잔은 同杯酒니 傳하는 디로 잡수시오 / 이거시 술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 이슬 바든 거시오니 잡수시오 잡수시오 / 一日須傾三百杯헌던 李太白도 못먹어시며 / 슈양의 나귀타고 숙향시을 츠즈라고 / 오류촌으로 드러가던 이선이도 못먹어시니 / 제발 제발 잡수시오 은잔 놋잔 다 바리고 / 부은잔의 잡수시오 이 안쥬는 산치만경 / 天台山 麻姑仙女가 더광쥬리 엽헤끼고 / 採藥하라 단니다가 蓬萊 方丈 瀛洲 三神山 / 不老草 쓰더다가 음향쳐로 ㅎ여시니 / 단아쁘나 잡수시오 이 몸이 죽어지면 / 天山萬水

의 무더두면 沙土로 집을 삼아 / 가슴우의 쉼을 언꼬 松竹으로 울을 흘제 / 杜鵑 접동 벗님되니 山川이 寂寞헌디 / 언의 벗지 날 차저오리 子孫의 祭 바들제 / 可食之物 버려신들 神靈이 잣취업서 / 안고가며 지고가라 잡수시오 잡수시오 / 이술혼잔 잡수시오 無情헌데 無情헌데 / 閑良 書房 無情헌데 勸홀 말습 만스와 / 다못 ㅎ고 긋치오니 千歲가지 醉호소서

<3>은 ‘古調’라고 이름붙인 것으로 보아 19세기 이전에 유행했던 노래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2> 구가와 다른 내용의 사설이 많이 발견되는데 내용이 풍요롭고 표현도 다채로워 보인다. 王維의 한시 <送元二使安西>의 한 구절이 들어가 있고 한무제, 석승, 안연, 이태백을 비롯하여 숙향, 이선 등 <숙향전>의 인물도 끌어와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노래의 시작은 ‘잡수시오 잡수시오~’가 아닌 ‘인생백년 살줄 알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영언』(진본) 486번 작품²¹⁾의 초장 ‘一定百年 살 줄 알면 酒色 참다 관겨하라~’와 흡사하다. 사람이 백년을 살 줄 안다면 (백년을 살기 위해) 주색을 참을 수 있겠으나 人命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 알 수 없으니 지금 마시고 즐기자는 것이다. 이후 몇 행 지나서 비로소 ‘잡수시오 잡수시오~’의 사설이 등장하는데, <권주가고조>만 하더라도 구가와 달리 ‘잡수시오 잡수시오~’가 아직 노래의 첫머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잡수시오’와 ‘잡수시오’가 서로 섞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영언』(가람본) 소재 <권주가>를 살펴보자.

<4> <勸酒歌>

자부시오 자부시오 니술 혼잔 자부시오 / 니술혼잔 자부시면 千萬年이나 스올이다 / 니술이 술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 니슬바든 거시오니 술만먹고 노스이다 / 약산동터 야즈러진 바회 꽃을 찢거 슈을노코 / 무진무진 먹시가

21) “一定百年 살 줄 알면 酒色 참다 관겨하라 / ㅎ혀 참은 後에 百年을 못 살면 기 아니 에도 른가 / 人命이 在于天定이라 酒色을 참은들 百年 살기 쉬우라”

다 駕一葉之扁舟호야 / 寄蜉蝣於天地호니 渺滄海之一粟이라 / 거포주니상속이라 哀吾生之須臾호고 / 羨長江之無窮이라 협비선이傲遊호고 / 抱明月이長終이라 知不可乎驟得이니 / 若飛蛾之撲燈이오 似赤子之入井이라 / 단불의 나뉘음이 아니늘고 무엇홀이 / 勸君更進一盃酒호니 西出陽關無故人이라 / 梧桐秋夜 발근달의 임상각이 시로와라 / 임도날을 생각는가 相思호던 우리郎君 / 꿈가온디 잠간만나 萬端情懷 다뭇일워 / 一場蝴蝶 호더지니 어와 인두를순 / 창망흔 구름빛기 뵈소리 뿐이로다

<4>는 <3>의 <권주가고조>에 비해 분량이 축소되어 있고 ‘잡으시오 잡으시오~’가 첫머리에 배치되는 등 여러 면에서 <2> 구가의 사설과 근접해 있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권주가고조>에 있던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자’라는 구절이 <4>에는 빠져 있고,²²⁾ <2> 구가의 ④ ‘명사십리 해당화야~’의 사설과 ⑦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리기 슬피 운다’는 사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청구영언』(가람본)보다 시기가 조금 늦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구영언』(육당본)(1852)에도 <권주가>²³⁾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2> 구가와 더욱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5> <勸酒歌>

○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흥 췌 잡으시오 이 술 흥 췌 잡으시면 千萬年이나 스오리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漢武帝 承露盤의 이슬 바든 술이오니 떠나나 잡으시오 若飛蛾之撲燈이며 似赤子之入井이라 단불의 나뉘음이 아니늘고 어이호리 駕一葉之扁舟호고 舉匏樽而相屬이라 寄蜉蝣於天地호니 渺滄海之一粟이라 哀吾生之須臾호고 羨長江之無窮이라 挾飛仙而遨遊호야 抱明月而長終이라 知不可乎驟得일시 托遺響於悲風이라 우리 흥 번 도라가면 다투호 췌 먹즈호리 스라실제 이리 노시 새벽서리 찬바람의 외기리기 우러엔다 蒼茫흔 구름빛기 뵈소리 뿐이로다 제 것 두고 아니 먹으면 王將軍之庫子로다

22) ‘제 것 두고 못 먹으면~’은 <2> 구가의 사설에는 ③에 들어가 있다.

23) 원문에는 ‘○’ 표지만 있고 띄어쓰기나 행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띄어쓰기만 하여 제시한다.

明沙十里 海棠花야 꽃진다 슬허마라 明年三月 도라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可憐호다 우리人生 뿌리업슨 萍草라 紅顏白髮이 절노 가니 권들 아니 늦거 온가 梧桐秋夜 붉은달의 任生覺이 시로와라

<5>는 『청구영언』(육당본)의 뒷부분에 <춘면곡>과 <백구사>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당시 가창가사로 분명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5>를 <2> 구가와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4>의 『청구영언』(가람본)에는 보이지 않던 ‘명사십리 해당화야~’(<2> 구가의 ④번 사설)와 ‘새벽서리 찬바람에 외기리기 슬피 운다’(<2> 구가의 ⑦번 사설)가 <5>에는 새롭게 들어가 있다. 즉 <4>보다는 <5>가 <2> 구가의 사설에 더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에는 <3> <권주가고조>와 <4>에 들어 있던 ‘약산동대 어즈러진 바위 꽃을 꺾어 주를 노며 무궁무진 먹사이다’(<2> 구가의 ⑤번 사설)가 빠져 있다. 그리고 ‘우리 흥 번 돌아가면 누가 한 잔 먹자하리’라는 사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3> <권주가고조>의 ‘이 몸이 죽어지면~언의 벗지 날 차져오리’라는 사설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처럼 ‘한 번 죽으면 누가 술을 권하겠는가’라는 발상은 李賀의 <將進酒>, 鄭澈의 <將進酒辭> 등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²⁴⁾ 인생무상의 허무감을 바탕으로 권주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가요집성』 소재 구가 <권주가>는 19세기 가집에 등장하는 여러 편의 <권주가>에서 그 사설의 형태를 찾을 수 있는데, 『청구영언』(가람본) 소재 <권주가>(<4>)보다는 『청구영언』(육당본) 소재 <권주가>(<5>)와 더 비슷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잠시 선행 연구의 논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구가 <권주가>가 ‘잡으시오 잡으시오~’라는 시조에 기반하여 생겨난 노래이고 19세기 가집에 수록된 구가 <권주가>의 앞부분은 이 시조의 노랫말을 수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²⁵⁾ 또한 여러 문헌에 수록된 구가의

24) “~술이 유령(劉伶)의 무덤 위의 흙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리[酒不到劉伶墳上土]” 이하, <장진주> “~이몸 주근 後면~뉘 흥 췌 먹자 홀고” 정철, <장진주사>

25) 김은희, 앞의 논문, 81면.

첫머리에 모두 ‘잡으시오 잡으시오~’의 사설이 배치된 것은 향유자들이 시조라는 장르에서 온 원 노랫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였다.²⁶⁾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독립된 시조로 간주한 ‘잡으시오 잡으시오~’는 실제 독립된 시조 형태로 등장한 예를 찾을 수 없다. 근거로 들었던 시조는 『역대시조전서』 2496번 작품²⁷⁾으로 거기에 소개된 자료의 실상을 보면, 각각 『가곡원류』(가람본) 소재 <권주가>와 『大東風雅』 소재 <권주가>의 한 부분임이 확인된다. 즉 ‘잡으시오 잡으시오~’는 <권주가> 안에 포함된 단위 사설이지, 그 자체가 <권주가>의 틀을 벗어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한 편의 시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잡으시오 잡으시오~’라는 시조를 기반으로 구가 <권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실상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잡으시오 잡으시오~’를 독립된 시조로 보게 된 배경에는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의 형태가 갖는 특징이 놓여 있다. 이는 <권주가>가 구가에서 현행가로 변화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변화의 맥락

앞서 소개한 구가와 현행가의 사설을 비교해 보면 일부는 공통되나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 흥미롭다. <1> 현행가의 사설 짜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❶ 불로초(不老草)로 술을 빚어 만년배(萬年盃)에 가득부어 비나니다 남산수(南山壽)를

26) 위의 논문, 86면.

27)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천만년이나 스오리라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에 이슬맞은 것이오니 / 쓰나다나 잡으시오 권혈적에 잡으시오”(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a, 896면)

28) 원문에는 ‘○’ 표지만 있으나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 순서에 따라 ❶, ❷ 등으로 번호를 매겨 제시하도록 한다.

❷ 약산동대(藥山銅臺) 어즈러진 바휘 꽃을 꺾어 주(籌)를 노며 무궁무진(無窮無盡) 잡으시오

❸ 권군종일명정취(勸君終日醞酒醉)하자 주부도유령분상토(酒不到劉伶墳上土)니 아니취코 무엇하리

❹ 백년(百年)을 가사인인수(可使人人壽)라도 우락중분미백년(憂樂中分未百年)을 살았을 때 잘 놉시다

❺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海棠花)야 꽃진다고 설워 마라 명년삼월(明年三月)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려니와 가련(可憐)하다 우리 인생(人生)

❻ 오동추야(梧桐秋夜) 밝은 달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임도 나를 생각하는지 나만 홀로 이러한지 임도 또한 이러한지

❼ 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임의 소식 바랐더니 창망(蒼茫)한 구름 속에 비인 소래뿐이로다

❽ 왕상(王祥)의 이어(鯉魚)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양지성효(養志誠孝)를 증자(曾者)같이 하오리라

❾ 이 술 한 잔(盞) 잡으시오 이 술을랑 반도연(蟠桃宴)의 천일주(千日酒)니 쓰나다나 잡으시면 만수무강(萬壽無疆) 하오리라

❿ 인간오복수위선(人間五福壽爲先)은 예로부터 이른배라 비나이다 비는 바는 산하(山河) 같은 수부귀(壽富貴)를 천년만년(千年萬年) 누리소서

<1>의 ❷, ❺, ❻, ❼은 약간의 어구가 넘나드는 부분이 있으나 <2>와 유사하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❶, ❸, ❹, ❽, ❾, ❿은 전혀 다르다. 현행가의 특징은 ❶과 같이 첫 서두부분이 달라진 점인데, ‘잡으시오 잡으시오~’가 고정 배치되던 구가와는 달리 ‘불로초로 술을 빚어~’라는 새로운 사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❶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설이 아니라 이미 독립 사설(시조)로 오랫동안 유행하다가 나중에 <권주가>에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영언』(육당본) 926번 시조가 바로 ‘불로초로 비즌 술을~’²⁹⁾인데 ❶은 그 시조의 초장, 중장의 사설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29) “不老草로 비즌 술을 萬年盃에 가득 부어 / 줍부신 蠶마다 비너니 南山壽를 / 이蠶곳 줍부

③에는 ‘그대에게 권하노니 종일 잔뜩 취하시라[勸君終日醺酒醉]’ ‘술이 劉伶의 무덤 위의 흙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리[酒不到劉伶墳上土]’라는 이하의 <장진주> 구절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④에는 ‘백년을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할지라도 근심과 즐거움이 반반으로 나뉘니 인생 백년이 못 된다’는 내용의 사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청구영언』(진본) 435번 시조³⁰⁾의 초장과 동일하다. 『청구영언』(진본)이 1728년의 문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조는 술을 권하는 노래로 18세기 초반부터 유행하다 나중에 <권주가>의 사설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⑤은 朴仁老의 시조³¹⁾로 현행가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조는 『청구영언』(진본) 97번 작품으로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등의 고사를 끌어와 효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현행가에는 원 시조의 종장 첫 구인 ‘一生에’만 탈락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다. ⑥는 ‘이 술 한 잔 잡으시오’라는 구절이 들어 있어 구가 첫머리의 ‘잡으시오 잡으시오~’의 잔존 형태로 보이나 ‘반도연’ ‘천일주’ ‘만수무강’ 등의 어구가 새로 첨가된 점은 특이하다. ⑩에는 ‘인간오복 가운데 장수가 으뜸이다[人間五福壽爲先]’라고 하면서 ‘長壽와 富貴를 천년만년 누리소서’와 같이 소원을 비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가의 짜임을 구가와 비교해 보면 현행가에는 ①, ④, ⑥과 같이 이미 독립된 시조로 존재하던 노래의 전편(또는 일부분)이 새롭게 삽입되어 있다. 반면 구가에 있던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자’ ‘약비 아지박등’ ‘사적자지입정’ ‘단불의 나비’ 등의 대목(<2> 구가의 ③번 사설)

시면 萬壽無疆 흐오리라(『청구영언』(육당본) 926번) 이 시조는 『가곡원류』(국악원본) 783번, 『가곡원류』(규장각본) 782번, 『가곡원류』(육당본) 738번, 『협률대성』 754번 등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30) “百年을 可使人人壽 이라도 憂樂이 中分百年을 / 흐물머 百年을 받듯기 어려오니 / 두어라 百年前까지란 醉코 놀려 흐노라”(『청구영언』(진본) 435번) 이 시조는 『청구영언』(가람본) 462번, 『청구영언』(육당본) 571번, 『가곡원류』(국악원본) 458번, 『가곡원류』(규장각본) 457번, 『가곡원류』(육당본) 434번, 『협률대성』 441번 등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31) “王祥의 鯉魚잡고 孟宗의 竹筍짓거 / 검던 머리 희도록 老萊子의 오슬 닦고 / 一生에 養志 誠孝를 曾子까지 흐리이다”(『청구영언』(진본) 97번) 이 시조는 『청구영언』(가람본) 101번, 『청구영언』(육당본) 901번, 『가곡원류』(국악원본) 48번, 『협률대성』 45번, 『남훈태평가』 4번 등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과 소동파의 <전적벽부> 인용대목(<2> 구가의 ⑥번 사설)은 탈락되어 있고, ③과 같이 이하의 <장진주> 구절이 새롭게 들어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행가의 서두부분이 ①로 변하게 된 점이 주목되는데, 구가 <권주가> 첫 머리에 고정 배치되던 ‘잡으시오 잡으시오~’라는 사설이 ‘불로초로 술을 빚어~’라는 새로운 사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점이 특이하다. 그러면 이러한 사설의 변화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동풍아』의 <권주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동풍아』는 1908년 金喬軒이 편집한 활자본 가집이다. 1970년대 이미 문헌적 검토가 이루어졌고³²⁾ 근대 초 일찍 출간되어 이후 다른 잡가집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 바 있다.³³⁾ 그동안 『대동풍아』는 가창을 목적으로 편찬된 가집이 아니라 사설 자체에 관심을 두고 비전문인들을 위한 보급용 독서물의 성격으로 발간되었다고 논의되어 왔는데³⁴⁾ 최근 연구에서는 가창물로서의 성격 또한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³⁵⁾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연행을 마무리하는 노래로 <罷宴曲>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인데, 특히 <장진주>-<권주가>-<과연곡>이 하나의 레퍼토리로 고정되어 연행이 끝나는 마당에 불렀을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를 살펴보도록 하자.³⁶⁾

<6> <勸酒歌>

○-1 불로초(不老草)로 술을 빚어 만년비(萬年盃)에 가득부어

잡으신 잔마다 비나니다 남산수(南山壽)를

이잔곳 잡으시면 만수무강(萬壽無疆) 흐오리다

○-2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슬호잔 잡으시오

이슬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이슬맞은 거시

32)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b, 65~66면.

33)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105~113면.

34) 위의 책, 112면.

35) 김태균, 『가곡창 가집 『대동풍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0면.

36) 원문에는 ‘○’ 표지만 있으나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 순서에 따라 ○-1, ○-2 등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오니

이슬흔잔 잡으시어 천만년(千萬年)을 스오리다

○3 약산동대(藥山銅臺) 여지러진 바위 솟을 썩거 쥬(籌)를 노며 무진무진 먹스이다

인성(人生) 한번 도라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권(勸)홀격에 잡으시오
백년가스인인슈 ((百年假使人人壽)라도 우락(憂樂)을 중분미백년(中分未百年)을 권(勸)홀머티 잡으시오
우 왈장스홍문번쾌(羽曰壯士鴻門樊噲) 두치쥬(斗卮酒)를 능음(能飲)호되 이슬 흔잔 못먹었네 권(勸)홀격에 잡으시오

권군징진일비쥬(勸君更進一盃酒)호니 서출양관무고인(西出陽關無故人)을 권(勸)홀머티 잡으시오

○4 제 것 두고 못먹으면 왕장군(王將軍)의 고즈(庫子)오니 은잔(銀盞) 늦잔(盞) 다 더지고 사기(砂器)잔에 잡으시오

첫지잔(盞)은 장슈쥬(長壽酒)오 돌지잔은 부귀쥬(富貴酒)오 셋지잔(盞)은 생남쥬(生男酒)니 잡고 연히 잡으시오
고리현인(古來賢人)이 기덕막(皆寂寞)호되 유유음즈(惟有飲者) | 유기명(留其名)호니 잡고잡고 잡으시오
막석상 두고쥬전(莫惜床頭沽酒錢)호라 천금산진환부리(千金散盡還復來)니

내잡아 권흔잔을 사양(辭讓)말고 잡으시오

○5 만수산 만수봉(萬壽山萬壽峰)에 만수정(萬壽井)이 있더이다

그물로 비진 술을 만년쥬(萬年酒)라 호더이다

진실노 이잔곳잡으시면 만수무강(萬壽無疆) 호오리다

『대동풍아』는 권1, 권2로 나뉘져 있는데 <6>은 권2에 수록되어 있다. <권주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2의 후반부에 <장진주>와 <파연곡>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뒤편의 ‘가사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가사부’에는 <상사별곡>, <춘면곡>, <처사가>, <죽지사>, <황계사> 등 5편만 수록되어 있다. 더구나 <6>은 시조 한 편 한 편을 구분하는 ‘○’ 표지를 통해 총 5편이 합성된 형태로 사설이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³⁷⁾ 이런 점을 근거로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를 시조로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³⁸⁾

우선 <6>의 사설 짜임을 살펴보면 ○-1은 『청구영언』(육당본) 926번 시조와 거의 동일하다.³⁹⁾ 현행가의 ❶이 『청구영언』(육당본) 926번 시조의 초, 중장의 사설만 들어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는 초, 중, 종장이 모두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 이는 독립적으로 유행하던 시조가 <권주가>라는 노래 안에 새롭게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는 구가 <권주가>의 첫머리에 나오는 ‘잡으시오 잡으시오~’와 흡사하다. 다만 어구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 ○-3은 <2>의 구가에 있는 ‘약산동대 어저러진~’의 사설과 <5>의 ⑤ ‘우리 흔 번 돌아가면~’ 대목이 ‘인성 한번 도라가면~’으로 바뀌어 합쳐져 있고, 현행가의 ‘백년을 가사인인수라도~’(❷)라는 구절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항우’ ‘번쾌’의 이야기를 들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술 한 잔 마시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첨가되어 있고, <3> <권주가고조>에 있던 왕유의 <송원이사안서>의 구절(‘권군징진일배주’ ‘서출양관무고인’)이 다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4에는 ‘제 것 두고 아니 먹으면~’(<2> 구가의 ③번 사설)이 남아 있고 여기에 은잔, 늦잔, 사기잔,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는 마치 <3> <권주가고조>의 ‘첫잔은 人事酒요 둘째 잔은 合歡酒요 셋째 잔은 同杯酒니 전하는 대로 잡수시오’ ‘제발 제발 잡으시오 은잔 늦잔 다 버리고 부은 잔의 잡으시오’ 등의 사설을 보는 듯하다. 이는 ○-3에서 왕유의 한시 구절이 삽입된 것과 더불어 <6>의 사설이 형성되는 데 예전에 유행했던 <권주가고조>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대목이다. ○-4에는 ‘천금을 다 쓰고 나면 돌아서 다시 온다[千金散盡還復來]’는 李白의 <將進酒>의 구절도 삽입되어 있다. ○-5는 구가에는 없는 새로운 사설로 마치 ○-1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1의 만년배, 만수무강을 이어 ○-5에서는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년쥬, 만수무강으로 단어가 확장되어 있다. ○-1에서 나왔던 ‘이잔곳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를 반복하여 ○-5에서는 ‘진실로 이잔곳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로 마무리하고 있다.

38) 김태균, 앞의 논문, 39면.

39) ‘비진 술을’이 ‘술을 빚어’로 ‘비너니’가 ‘비나니다’로 바뀐 것 외에는 동일하다.

37) 각각 311, 312, 313, 314, 315의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6>에는 ‘불로초로 술을 빚어~’라는 시조가 첫머리에 배치된 반면 ‘잡으시오 잡으시오~’는 두 번째로 밀려나 있다. 이는 현행가에서 ‘불로초로 술을 빚어~’가 ‘잡으시오 잡으시오~’를 밀어내고 첫머리를 차지한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미 독립적으로 유행하던 시조가 <권주가>의 일부로 들어오면서 기왕의 사설이 밀려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잡으시오 잡으시오~’는 더욱 밀려나 현행가에는 ㉠와 같이 ‘이 술 한 잔 잡으시오’만이 남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6>에는 현행가에는 탈락된, 구가의 ‘제 것 두고 아니 먹으면~’ 구절(㉡)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6>은 구가와 현행가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노래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유행하던 <권주가고조>의 사설이 일부 들어와 다채로운 표현을 보여주는 점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이백의 <장진주> 구절이 새로 들어가고 만년배, 만년주, 만수무강 등의 단어가 점층 반복된 것은 특이한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6>이 “당대에 존재하는 모든 노랫말을 망라해 놓은 듯하고 신가와 구가의 두 유형이 혼합된 상태로 수록되어 있는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다”⁴⁰⁾고 하면서 잡가집 중에 『特別大增補新舊雜歌』(1916) 소재 <권주가>가 이와 똑같다고 지적하였다.⁴¹⁾ 그런데 자료를 검토한 결과 <6>과 사설이 동일한 <권주가>는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되었는데, 李用基의 『樂府』 소재 <권주가>㉢과 申明均의 『歌詞集』(1940) 소재 <권주가>(一)이 그 예이다. 또한 『대동풍아』에 나타난 창곡 배열과 편제상의 특징은 이후 잡가집에 그대로 이어져 <장진주>-<권주가>-<과연곡>의 레퍼토리는 여러 잡가집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잡가집에 수록된 <권주가>의 사설도 『대동풍아』와 흡사하다. 다만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특별대증보신구잡가』 소재 <권주가>가 유일하고 대부분은 ㉡와 ㉣가 탈락된 나머지 3개의 사설(㉡, ㉢, ㉣)로 축소된 형태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증보신구잡가』(1915) 소재 <권주가>를 살펴보자.⁴²⁾

40) 김은희, 앞의 논문, 85면.

41) 위의 논문, 86면.

42) 원문에는 ‘○’ 표지만 있으나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 순서에 따라 ㉡-a, ㉡-b

<7> <勸酒歌>

○-a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비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잔마다 비나이다 남산
술을 이잔곳 잡으시면 만수무강 흐오리다

○-b 약산동대 여지러진 바위솟을 썩거 주를 노며 무진무진 잡으시오 인성
한번 도라가면 누라 혼잔 먹즈히리 살라슬져 이리노세 빅년가스인인슈라도
우락중분미빅년을 권홀력에 잡으시오 권군ㄹ이진일비쥬하니 셔출양관무고인
을 권홀머디 잡으시오

○-c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이 잇더이다 그물노 비진 술을 만년쥬라 흐더이
다 진실노 이잔곳잡으시면 만수무강 흐오리다

<7>의 사설 짜임을 보면 ㉡-a는 ㉡-1과 동일하고, ㉡-b는 ㉡-3이 축소된 형태이다. <7>에는 <6>의 ‘잡으시오 잡으시오~’(㉡-2) 사설이 아예 탈락되어 있는데, 이는 구가의 첫머리에 배치되던 ‘잡으시오 잡으시오~’가 <6>에서는 두 번째로 밀려나 있다가 20세기 초 잡가집에서는 완전히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세기 이전에 유행했던 <권주가고조> 때부터 들어 있던 ‘한무제’ ‘승로반’의 장황한 사설과 더불어 구가 <권주가>의 핵심 사설인 ‘잡으시오 잡으시오~’가 대거 탈락한 것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연행 환경에 따라 노래가 단형화되는 과정에서 사설의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된다. 현행가 <권주가>에서 ‘잡으시오 잡으시오~’ 사설이 거의 탈락되고 단지 ㉡의 ‘이 술 한 잔 잡으시오’로만 남아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b는 ㉡-3에서 ‘우왈장사흥문배~’ 부분이 생략된 형태로 들어가 있고, ㉡-c는 ㉡-5와 동일하다. <7>에는 ‘제 것 두고 못 먹으면~’이 탈락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가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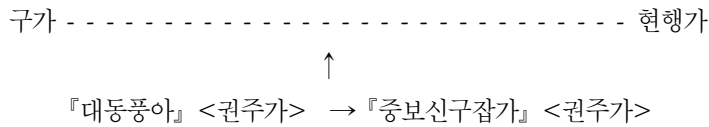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7>을 ‘불로초로 비진 술을~’ ‘약산동대 여지러진 바위~’ ‘만수산 만수봉에~’로 시작되는 시조가 합쳐진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⁴³⁾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7>은 『대동풍아』 소

등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43) 성범중, 앞의 논문, 411면.

재 <권주가>가 <장진주>-<권주가>-<파연곡>의 레퍼토리대로 잡가집에 수록되었다가 나중에 두 개 사설이 탈락되어 축소된 형태로 전승된 것이지, 예전에 없던 <권주가>가 시조 몇 편의 조합으로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6>『대동풍아』 소재 <권주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유행하다가 이후 <7>『중보신구잡가』 소재 <권주가>의 예와 같이 두 개의 사설(○-2, ○-4)이 탈락된 형태로 잡가집에 두루 수록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권주가>가 현행가의 사설로 변화·정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6>『대동풍아』 소재 <권주가>는 ‘신가와 구가의 두 유형이 혼합된 상태’⁴⁴⁾로 보기 보다는 구가에서 현행가로 사설이 변화되는 과도기에 형성된 작품, 혹은 구가에서 현행가로 사설이 변화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현행가의 사설이 형성되는 데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가 담당한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가가 10개의 단위 사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가 독립된 5개의 사설이 조합 형성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개별 사설의 독립성이 강하게 유지되는 형태가 이후 계속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동풍아』의 편집자는 <권주가>의 개별 사설에 각각 번호까지 부여했는데, 이후 현행가의 사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1과 같이 평시조로서의 온전한 형태를 보이던 것이 ❶에서와 같이 시조로서의 특성이 약화되는 혹은 원 시조의 형태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김은희, 앞의 논문, 85면.

여기서 경판 <춘향전>에 삽입된 <권주가>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경판 30장본과 35장본의 <권주가>는 구가로서 내용이 동일하고 적어도 19세기 중엽 이전부터 유행한 노래이고, 23장본의 <권주가>는 현행가로서 19세기 중엽 이후 유행하여 20세기까지 가창된 노래라고 보았다.⁴⁵⁾ 그런데 30장본의 <권주가>⁴⁶⁾와 35장본의 <권주가>⁴⁷⁾는 모두 구가로 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경판 35장본의 <권주가>는 필사본 『남원고사』의 <권주가>⁴⁸⁾와 동일하다. 또한 경판 23장본의 <권주가>⁴⁹⁾를 현행가로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가에는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자로다’는 내용이 탈락되어 있는데 23장본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로초로 술을 빚어~’로 시작하면서도 ‘제 것 두고 못 먹으면~’이 여전히 남아 있는 <6>『대동풍아』 소재 <권주가>와 오히려 더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23장본의 <권주가>는 현행가로 정착되기 이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45) 이문성, 앞의 논문, 25~26면.

46) “○ 즈부시오 즈부시오 이 술 혼 잔 즈부시오 이 술 혼 잔 잡으시면 천만연 이는 스오리이다 이 술이 술이 아니오라 한무제 승노반의 이슬 바든 거시오니 쓰느 다느 즈부시오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지고지로다 혼 번 도라가면 뉘 혼 잔 먹즈 흐리 스라슬제 이리 노시 상스흐던 우리 낭군 꿈 가온더 잠간 맛는 만단정회 다 못하여 날이 장춧 발가세라”(춘향과 이도령의 첫날밤 장면) “○ 즈부시오 즈부시오 이 술 혼 잔 즈부시오 이 술 혼 잔 즈부시면 천만연 이는 스오리이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의 이슬 바든 거시오니 쓰나 다나 즈부시오”(신관사또의 생일잔치 장면) 경판 30장본 <권주가>

47)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잔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슈부다남 흐오리이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노반의 이슬 바든 거시오니 쓰나 다나 잡으시오 인간영육 헤아리니 묘창히지일숙이라 술이느 먹고 노스이다 진황한무 장성불스 녀산무릉송벽속의 일부황토 그 아니 가련한가 술만 먹고 노스이다 인간칠십고리회라 칠순형낙 덧업도다 아니 놀고 무엇 흐리 육산포림 결슈라도 살아슬 적 썸이로다 뜻출 썸겨 슈틀 노화 무진무궁 먹스이다 우리 한번 도라가면 뉘라 한 잔 먹즈 흐리” 경판 35장본 <권주가>

48)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슈부다남 흐오리이다 이 술이 술이 아니오라 한무제 승노반의 이슬 바든 거시오니 쓰나 다나 잡으시오 인간영육 헤아리니 묘창히지일숙이라 술이나 먹고 노스이다 딘시황 한무제도 당성불스 못하여서 녀산무릉 송벽중의 일부황토 그 아닌가 술만 먹고 노스이다 인간칠십고리회라 칠순형낙이 덧업도다 아니 놀고 무엇흐리 육산포림 결슈라도 이 술 한 잔 스라슬 적 분이로다 뜻출 썸겨 슈틀 노코 무진무궁 먹스이다 우리 혼번 도라가면 뉘라 혼 잔 먹즈흐리” 『남원고사』 <권주가>

49) “○ 불노초로 술을 빚져 만년잔에 가득 부어 즈부시오 이 술 혼 잔 잡으시면 흐오리다 남산 슈를 ○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의 고지로다 인성 혼 몸 도라가면 뉘라 혼 잔 먹즈 흐리 스라슬 제 이리 노세” 경판 23장본 <권주가>

여기서 23장본의 <권주가>가 ‘이미 여러 가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 등장한 노래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최근의 논의⁵⁰⁾를 되짚어 보자. 물론 ‘불로초로 술을 빚어~’로 시작되는 <권주가>가 ‘불로초로 비즌 술을~’이라는 시조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점을 밝힌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삽입된 것은 원 시조의 형태가 아니라 단위 사설이 조합되어 새롭게 형성된 <권주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유행했던 시조에서 연원했다는 점만으로 23장본의 <권주가>가 30장본의 <권주가> 보다 앞서 유행한 노래라고는 볼 수 없다. 23장본의 <권주가>는 ‘불로초로 술을 빚어~’가 ‘잡으시오 잡으시오~’의 사설을 뒤로 밀어내고 첫머리에 들어와 있는 형태를 보이는 점에서 30장본 <권주가>보다 후대의 노래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4. 12가사 <권주가>의 사설 변화의 의미

이 장에서는 <권주가>가 구가에서 현행가로 사설이 변화된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구가의 사설과 공통되는 현행가의 사설은 ②, ⑤, ⑥, ⑦인데, 정철의 <장진주사>와 연관이 있는 ②를 제외한 나머지 ⑤, ⑥, ⑦은 인생무상,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한 것으로 굳이 <권주가>가 아니어도 여타의 노래에도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사설들이다. 여기서 신구 사설의 변화를 “대중성을 지닌 말들이 살아남고 새로운 유행어가 함께 짜여 지는”⁵¹⁾ 결과로 본다면 이들 ⑤, ⑥, ⑦은 세월이 흘러도 가장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불릴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한 사설이라 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구가에서 ‘제 것 두고 못 먹으면~’ ‘약비아지박당’ ‘사적자 지입정’ ‘단불의 나비’ 등의 대목(③)과 소동파의 <전적벽부> 인용대목(⑦)이 현행가에는 탈락되어 있고, ‘불로초로 술을 빚어~’(①)와 이하의 <장진주> 구절(③), ‘백년을 가사인인수라도~’라는 시조의 초장(④), 효도를 강

조한 박인로의 시조(⑧), 반도연, 천일주, 만수무강을 강조한 사설(⑨), 수부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사설(⑩) 등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 이러한 사설의 변화 양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서 우선 주목할 점은 노래가 불리는 ‘연행 현장’의 성격 변화라는 측면이다.⁵²⁾ 즉 연행 현장의 성격이 바뀌면 기존의 노랫말이 어울리지 않게 되고 그 변화된 성격에 걸맞은 새로운 사설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주가>가 기본적으로 ‘술을 권하고 마시는 노래’로서 다른 어떤 12가사보다 현장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 연행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가나 현행가가 연행된 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연행판의 성격을 명확히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전통적으로 구가가 기녀를 대동한 술자리에서 풍류를 즐기며 연행되었던 노래라고 한다면, 것처럼 기녀에게 권주가를 불리며 술을 마시는 풍류의 쇠퇴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는 있을 듯하다. 풍류의 쇠퇴와 더불어 사설의 일부가 이미 획득했던 고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연행 현장에 부응하는 사설이 첨가, 부각되는 방향으로 <권주가>가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행가는 말 그대로 『가요집성』이 편찬될 당시 ‘현재 불리는(현행)’ 노래인데, 獻爵을 통해 祝壽하는 절차가 오랫동안 壽宴의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현행가는 수연의 자리를 통해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고 이러한 현행가의 전승은 수연이라는 연행 현장의 지속성에 따른 레퍼토리의 수명 연장 현상⁵³⁾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순한 레퍼토리의 반복에 그치지 않고 수연에 걸맞은 새로운 사설 첨가의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녀를 옆에 두고 술을 즐기는 자리는 줄어들었지만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回甲宴, 古稀宴 등의 수연은 계속되었고

52) 이 논문이 국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권주가>가 실제로 불리던 현장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행 현장의 성격이 바뀌면 노래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발표와 토론을 주요하게 거론한 최근의 논문에서도 텍스트 자체의 문맥뿐만 아니라 연행판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래가 어떠한 ‘연행적 맥락’에 놓여 있는지 살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김석희, 「고전시가 작품 해석의 몇 가지 국면에 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47면)

53) 위의 논문, 같은 면.

50) 이지영, 앞의 논문, 127면.

51) 김은희, 앞의 논문, 84면.

그러한 연행 현장에 부응하는 사설의 변화를 통해 현행가의 레퍼토리는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조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탄로나 인생허무와 같은 대표적인 주제를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변화가 발견되는데 소위 ‘슬퍼하노라’ 형에서 ‘아니 놀고 어이리’ 형으로 변화한 것은 연행 공간의 흥겨운 유희노래에 초점을 두고 작시된 결과라고 논의되기도 한다.⁵⁴⁾ 이는 가장된 노래의 경우 실제로 불리던 연행 현장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12가사와 같은 가장가사에 있어서도 그 연행의 맥락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연행 현장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사설이 갖는 정감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가는 무엇보다 인생무상, 허무, 탄식의 정감이 강하다. 소동파의 <전적벽부>를 인용한 대목 역시 인간이 하찮은 존재임을 탄식하는 내용이다. “가련하다” “서럽다” “슬프다” 등의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고 노래 전반에 걸쳐 애상적이고 서글픈 정감이 흐른다. 등불에 부딪히는 나방, 우물에 들어가려는 아기, 단불의 나비 등과 같은 비유를 빌어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에 놓인 힘없는 존재인가를 새삼 확인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갈 운명이기에 너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우리’의 공감대 속에서 술을 (너에게) 권하고 (나도) 마시는 노래’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현행가는 구가의 정감을 이으면서도 頌祝의 분위기가 상당히 가미된 것이 느껴진다. 이는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또는 (수부귀를) ‘누리소서’와 같이 상대방을 위해 기원하는 사설이 대거 첨가된 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현행가가 주로 수연과 같은 자리에서 불려진 獻壽音樂이라는 점과 관련되는데,⁵⁵⁾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서글프고 애상적이기보다는 송축과 염원의 요

소가 가미된 노래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잡으시오’가 아닌 ‘비나이다’로 사설이 변화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행가가 주로 현수음악으로 불렸다면 ㉞과 같이 효도를 다짐하는 시조가 삽입된 것도 그다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수연과 같은 자리에서라면 술 마시며 인생의 허무함을 곱씹기보다는 장수한 부모를 위해 술을 올리고 기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결국 현행가는 ‘(부모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술을 권하고 (나는) 효성스런 자식이 될 것을 다짐하는 노래’로서, 구가의 애상적이고 서글픈 정감이 누그러지고 송축적인 정감이 보다 가미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12가사 <권주가>가 구가에서 현행가로 사설이 변화되는 맥락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특정 단위 사설의 유지 혹은 탈락, 새로운 사설의 등장 등을 통해 전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동풍아』 소재 <권주가>가 구가와 현행가를 매개하는 중간 단계의 이본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현행가로 사설이 변화되는 맥락에 있어 연행 현장의 성격 변화와 사설이 담고 있는 정감의 변화에 주목해 보았다.

그런데 <권주가>는 옛날부터 술자리에서는 반드시 불렀다고 하는바 여러 가지 사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논의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歌曲』에 수록된 <別勸酒歌>는 특이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別~’이라고 붙인 제목에서부터 기존의 <권주가>와는 색다른 노래임이 감지되는데 실제 사설 자체가 매우 독특하다. 구가와 비교할 때 ‘약산동대 어즈러진 바위~’ 사설(㉞)만을 공유할 뿐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 대중적으로 유행한 <권주가>와 사뭇 다른 사설짜임을 보이는 점에서 달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4년 발견된 시가집 『永陽歷贈』을 통해 그 존재가 학계에 알려

54)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98면.

55) “勸酒歌는 도드리 장단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 무장단에 축 늘어뜨려 唱者의 한껏 목자랑을 하기 위한 곡이다. 壽宴이나 큰 잔치의 현수음악이어서 여자만 부르는 곡으로 되어 있다. 권주는 현천수 음악을 깔고 편안히 부르기도 하나, 서울 사대부집 수연장에서는 긴 염불의 삼현을 잡히고 기생이 부르기도 한다”(『최정희 가곡(歌曲)·가사(歌詞)』 해설서(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밑줄 필자)

진⁵⁶⁾ 박인로의 가사 <권주가>는 12가사 <권주가>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조선 후기 가사집 『雜歌』에 수록된 <권주가>, 『海東遺謠』에 수록된 <권주가>와 서로 이본 관계에 있다.⁵⁷⁾ 이들 작품은 분량 면에서도 12가사 <권주가>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그런가 하면 12가사 <권주가>는 일부 한역되어 전하기도 하는데, 李裕元이 구가의 첫 부분을 한역한 것과 鄭顯奭이 『教坊歌謠』(1872)에 舊調와 新調로 나누어 한역한 것이 남아 있다. 특히 『교방가요』에는 한글 노랫말이 병기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다. 더구나 정현석이 한역해 놓은 <권주가> 구조와 신조에는 <권주가> 구가와 현행가의 사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어, 당시 <권주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설이 형성되고 서로 혼동되어 불리던 정황⁵⁸⁾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주가’는 12가사 <권주가>처럼 주로 가창가사의 계열로 전승되기도 하고, 그와는 내용도 다르고 분량상의 차이도 확연한 박인로의 <권주가>와 같은 계열로 전승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한역되어 전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이를 두루 고려하여 국문시가에서 <권주가>의 전승양상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후속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가곡원류』(가람본)
 『가곡원류』(국악원본)
 『가곡원류』(규장각본)
 『가곡원류』(육당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시리즈 18, 『최정희 가곡·가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남훈태평가』
 『대동풍아』
 『세시풍요』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a.
 이창배 편저, 『가요집성』, 흥인문화사, 1976.
 『청구영언』(가람본)
 『청구영언』(육당본)
 『청구영언』(진본)
 『협률대성』

2. 논저

-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김문기, 「十二歌詞의 漢譯樣相과 그 意味」, 『국어교육연구』 32, 국어교육학회, 2000.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
 김석배, 「박인로의 <권주가> 연구」, 『문학과 언어』 30, 문학과언어학회, 2008.
 김석희, 「고전시가 작품 해석의 몇 가지 국면에 관한 고찰」,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김성은, 「蘆溪 <勸酒歌>의 詞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김은희, 「十二歌詞의 文化的 基盤과 樣式的 特性」,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창곤, 「가사 권주가의 사적 고찰」, 『한국음악연구』 27, 한국국악학회, 1999.

56) 김창규,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6 ; 김석배, 『경오본 노계가집』, 구미문화원, 2006 ; 김성은, 「蘆溪 <勸酒歌>의 詞에 나타나는 특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28, 한국시가학회, 2010.

57) 김석배, 「박인로의 <권주가> 연구」, 『문학과 언어』 30, 문학과언어학회, 2008, 37면.

58) 김문기, 「十二歌詞의 漢譯樣相과 그 意味」, 『국어교육연구』 32, 국어교육학회, 2000, 108면.

- 김창규, 『노계 시문학 논고』, 박이정, 2006.
- 김창원, 「조선후기 ‘歌詞’에 대한 역사적 검토」, 정재호 편저,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 김태균, 「가곡창 가집 『대동풍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 성무경,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 성범중, 「<장진주> 계열 작품의 시적 전승과 변용」,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 신경숙, 『19세기 가집의 전개』, 계명문화사, 1994.
-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b.
- 이문성, 「경관 춘향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지영, 「경관 춘향전의 개작방향에 대한 재론」, 『어문연구』 제39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년 여름.
- 임재욱, 「12가사의 연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95.

Formation and Context of change of the lyrics
on Twelve Gasa *Gwonjuga*

Jeong, In-so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context of change of the lyrics on *Gwonjuga*. *Gwonjuga* is one of the Twelve Gasa. Now there are two kinds of lyrics of *Gwonjuga*. One is called old song, the other is current song.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wo songs.

Distinct feature of old song is the first line 'hold on hold on' but there is not in current song. Current song starts with 'brew alcohol from elixir plant'. This change of the lyrics would be affected by *Gwonjuga* in Daedongpunga. That song is maybe the text on transition period from old song to current song. Current song is divided into ten parts, *Gwonjuga* in Daedongpunga is divided into five parts. This division of lyrics was not seen before.

Current song has new lyrics, for example Sijo of Park In-lo. We can find blessing meaning from current song, because current song was sung in a birthday feast for an old man. On the other hand we can find sad feeling in transience of life from old song. According to singing place lyrics of *Gwonjuga* had been changed.

Key words : *Gwonjuga*(灌酒歌), Twelve Gasa, formation of lyrics, change of lyrics, old song, current song

접수일자: 2011. 8. 30
심사기간: 2011.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1. 11. 20